위치	오류유형	수정 전	수정 후
5p 확인문제	문제-본문	확인문제 다음 글의 내용이 나타내고 있는 언어의 특성으로 적절한 것은? 2018 소방직 하반기 명미는 모두가 사물을 하나의 이름으로 부르는 게 싫어서 사물의 이름을 자신이 정한 다른 단어로 바꿔 부르기로 결심하였다. 명미는 '침대'를 '사진'이라 부르기로 결심하고는 "침대에 누울 거야."가 아닌, "사진에 누울 거야."라고 말하였으며, '의자'를 '시계'라 부르면서 "시계에 앉아 있다."라고 이야기하였다. 명미 주변의 친구들은 명미의 말을 좀처럼 알아들을 수 없었다. 정답해설 명미 주변의 친구들이 명미의 말을 좀처럼 알아들을 수 없었던 것은 언중들 사이의 묵계를 어기고 자기 나름대로의 언어를 사용했기 때문이다. 언어는 언중들 간의 사회적 약속이므로 개인이나 특정 집단이 이를 마음대로 바꿀 수 없다. 이를 '언어의 사회성(= 불멸성)'이라 한다. 정답 ②	① 언어의 창조성 ② 언어의 사회성 ③ 언어의 역사성 ④ 언어의 자의성

<table>
<tr><th>위치</th><th>오류유형</th><th>수정 전</th><th>수정 후</th></tr>
<tr><td>6p
(8) - 표</td><td>문제-본문</td><td>

(8) **역사성** : 언어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한다.

<table>
<tr><td colspan="2">음운의 변화</td><td>세월의 흐름에 따라 단어의 모양이나 말소리가 변화
예 곶 → 꽃</td></tr>
<tr><td colspan="2">의미의 생성</td><td>새로운 상황, 사물이 생겨나면서 그에 해당되는 새로운 말 생성
예 자동차, 컴퓨터, 휴대전화 등</td></tr>
<tr><td rowspan="3">의미의 성장</td><td>의미의 확대</td><td>본래 쓰이던 말의 의미 확장
예 박 : 박을 두 쪽으로 쪼개서 물을 푸거나 물건을 담는 데 쓰는 그릇 → 나무나 플라스틱 등으로 만든 것도 포함</td></tr>
<tr><td>의미의 이동</td><td>말의 의미가 다른 것으로 변화
예 인정 : 벼슬아치들에게 몰래 주던 선물 → 남을 동정하는 따뜻한 마음</td></tr>
<tr><td>의미의 축소</td><td>본래 쓰이던 말의 의미 축소
예 미인 : 남녀를 불문하고 재덕이 뛰어난 사람 → 얼굴이나 몸매 따위가 아름다운 여자</td></tr>
<tr><td colspan="2">의미의 소멸</td><td>상황, 사물이 없어지면서 말도 함께 소멸
예 지달 : 말 따위가 함부로 뛰지 못하게 그 발을 얽매는 기구</td></tr>
</table>

</td><td>바가지</td></tr>
</tabl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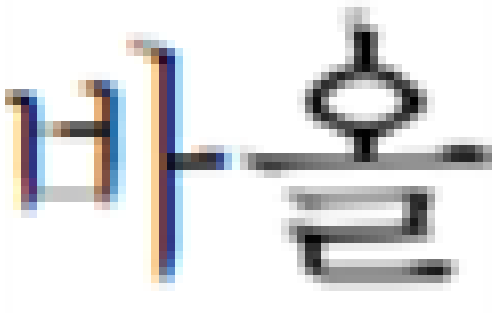
위치	오류유형	수정 전	수정 후
8p 확인문제	문제-본문	**확인문제** 밑줄 친 표현에서 주로 나타나는 언어적 기능은? 2016 사회복지직 9급 나흘 전 감자 포기만 하더라도, 나는 저에게 조금도 잘못한 것은 없다. 계집애가 나물을 캐러 가면 갔지 남 울타리 엮는데 쌩이질을 하는 것은 다 뭐냐. 그것도 발소리를 죽여 가지고 등 뒤로 살며시 와서 "얘! 너 혼자만 일하니" 하고 긴치 않은 수작을 하는 것이었다. 어제까지도 저와 나는 이야기도 잘 않고 서로 만나도 본척만척하고 이렇게 점잖게 지내던 터이련만, 오늘로 갑작스레 대견해졌음은 웬 일인가. 항차 망아지만한 계집애가 남 일하는 놈보구……. "그럼 혼자 하지 떼루 하디" — 김유정, 「동백꽃」 ① 미학적 기능 ② 지령적 기능 ③ 친교적 기능 ④ 표현적 기능 정답해설 제시문에서 밑줄 친 표현은 점순이가 나에게 대답을 얻고자 물어본 것이 아니라 점순이가 나와 친해지기 위해 말을 건넨 표현이므로 친교적 기능에 해당한다. 친교적 기능은 화자가 청자와의 유대관계를 확인하거나 친교를 돈독하게 하기 위해 사용하는 언어적 기능으로, 내용보다는 상황이 중요하다. 정답 ③	"애! 너 혼자만 일하니? "

위치	오류유형	수정 전	수정 후
15p (3)	문제-본문	(3) **구개음화** : 잇몸소리인 'ㄷ, ㅌ'이 전설모음이면서 고모음인 'ㅣ'나 반모음 'ㅣ'로 시작하는 형식형태소 앞에서 구개음인 'ㅈ, ㅊ'으로 바뀌는 현상 예시: ㄷ+ㅣ → ㅈ: 굳이 → [구지] ㅌ+ㅣ → ㅊ: 같이 → [가치] / 굳히다 → (구티다) → [구치다] / 닫혀 → (다텨) → [다쳐]	[i]나 [j]로
22p 확인문제	문제-본문	**확인문제** 밑줄 친 단어의 품사를 같은 것끼리 묶은 것은? 2019 국가직 • 쌍둥이도 서로 성격이 ㉠ 다른 법이다. • 날씨가 건조하면 나무가 잘 ㉡ 크지 못한다. • 남부 지방에 홍수가 ㉢ 나서 많은 수재민이 생겼다. • 그 사람이 농담은 하지만 ㉣ 허튼 말은 하지 않는다. • 상대에게 자유를 주는 것이 진정한 사랑이 ㉤ 아닐까? ① ㉠, ㉡ ② ㉡, ㉢ ③ ㉢, ㉣ ④ ㉣, ㉤ 정답해설 ㉡ 날씨가 건조하면 나무가 잘 크지(동사) 못한다. → 밑줄 친 '크지'는 동사로, '동식물이 몸의 길이가 자라다.'라는 의미로 쓰였다. ㉢ 남부 지방에 홍수가 나서(동사) 많은 수재민이 생겼다. → 밑줄 친 '나서'는 동사로, '홍수, 장마 따위의 자연재해가 일어나다.'라는 의미로 쓰였다. 정답 ②	㉤ 아닐까?

위치	오류유형	수정 전	수정 후
24p 확인문제	문제-본문	확인문제 다음 중 밑줄 친 부분의 품사가 다른 하나는? 2016 서울시 9급 ① 그 가방에 소설책 한 권이 들어 있었다. ② 넓은 들판에는 농부가 한둘 눈에 띌 뿐 한적했다. ③ 두 사람은 서로 다투다가 화해했다. ④ 보따리에서 석류가 두세 개 굴러 나왔다. 정답해설 '하나나 둘쯤 되는 수'를 뜻하는 '한둘'은 뒤에 주격 조사가 붙을 수 있는 주어이므로 수사이다. • 한둘(수사) : 하나나 둘쯤 되는 수 예 넓은 들판에는 농부가 한둘 눈에 띌 뿐 한적했다. • 한둘(명사) : 1. (주로 '한둘이' 꼴로 쓰여 뒤에 오는 부정어와 호응하여) '조금'의 뜻을 나타내는 말. 2. 어떤 일이나 현상이 적은 수부터 서서히 시작됨을 나타내는 말 예 서남풍이 불 때면 저 굴뚝의 매연이 모두 이쪽으로 날아와 우리 마을만 하더라도 기관지를 앓는 사람이 한둘이 아니라네 정답 ②	② 넓은 들판에는 농부가 한둘 눈에 띌 뿐 한적했다.
35p ㉡	문제-본문	㉡ 접미사 : 어근의 앞에 붙어 뜻을 제한하는 접사	어근의 뒤에

위치	오류유형	수정 전	수정 후
40p 확인문제	문제-본문	확인문제 밑줄 친 부분과 같은 의미로 사용된 것은? 2018 지방직9급 지도 위에 손가락을 짚어 가며 여행 계획을 설명하였다. ① 이마를 짚어 보니 열이 있었다. ② 그는 두 손으로 땅을 짚어야 했다. ③ 그들은 속을 짚어 낼 수가 없는 사람들이었다. ④ 시험 문제를 짚어 주었는데도 성적이 좋지 않다. 정답해설 제시문의 '짚어'는 '여럿 중에 하나를 꼭 집어 가리키다.'라는 의미로 쓰였다. 따라서 이와 같은 의미로 쓰인 것은 ④이다. 정답 ④	① 이마를 짚어 보니 열이 있었다. ② 그는 두 손으로 땅을 짚어야 했다. ③ 그들은 속을 짚어 낼 수가 없는 사람들이었다. ④ 시험 문제를 짚어 주었는데도 성적이 좋지 않다.

위치	오류유형	수정 전	수정 후
44p 01번 해설	문제-본문	01 본용언과 보조용언을 구분하는 기준은 용언의 서술성이다. 용언이 서술성을 가지고 있으면 본용언이 되고 서술성이 없으면 보조용언이 된다. • 이 책도 한번 읽어라.(o) – 서술성이 있으므로 본용언 이 책도 한번 보거라.(×) – 서술성이 없으므로 보조용언 • 밖의 날씨가 매우 덥다.(o) – 서술성이 있으므로 본용언 밖의 날씨가 매우 보다.(×) – 서술성이 없으므로 보조용언 → 읽어 보거라('시행'을 뜻하는 보조동사), 더운가 보다('추측'을 뜻하는 보조형용사) 정답 ①	·이 책도 한번 읽어 보거라. (×) ·밖의 날씨가 매우 더운가 보다. (×)
50p ① - 표	문제-본문	파생적 사동 (단형 사동) | 동사, 형용사의 어근+'-이-, -히-, -리-, -기-, -우-, -구-, -추-' 동사적 사동 (장형 사동) | 동사, 형용사의 어근+'-게 하다'	어간 어간
51p (2) ① ㉡ - 표	문제-본문	㉡ 능동 표현의 서술어를 피동 표현의 서술어로 바꾼다. 파생적 피동 (단형 피동) | 동사, 형용사의 어근+'-이-, -히-, -리-, -기-' 동사적 피동 (장형 피동) | 동사, 형용사의 어근+'-어지다', '-되다', '-게 되다'	(타)동사의 어간 어간
54p 핵심 톡 비결	문제-본문	핵심 톡 비결 | 높임 표현의 주의할 점 • (직원이 고객에게) 주문하신 상품은 현재 품절이십니다. → 사물을 높이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주문하는 상품은 현재 품절입니다.'와 같이 고쳐야 한다. • (방송에 출연해서) 저희 나라가 이번에 우승한 것은 국민 여러분의 뜨거운 성원 덕택입니다. → '나라'는 높임이나 낮춤의 대상이 아니므로 '저희'라는 말로 수식할 수 없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우리 한민족이 세운 나라를 스스로 이르는 한 단어의 명사이므로 붙여 쓰는 것이 옳다.	주문하신
62p 2. (1)	문제-본문	(1) 상형 : 소리를 내는 발음 기관의 모양을 본떠 만든다. 어금닛소리(아음) | 혓소리(설음) | 입술소리(순음) | 잇소리(치음) | 목구멍소리(후음) 허뿌리가 목구멍을 막는 모양 | 혀끝이 윗잇몸에 붙는 모양 | 입의 모양 | 이의 모양 | 목구멍의 모양 ㄱ | ㄴ | ㅁ | ㅅ | ㅇ	모양을 본떠

위치	오류유형	수정 전	수정 후
66p 확인문제	문제-본문	확인문제 다음 중 한글 창제 당시 초성 17자에 포함되지 않는 글자가 쓰인 것은? 2017 서울시 9급 ① 님금 ② 늣거사 ③ 바올 ④ 가비야본 정답해설 'ㅸ'(순경음 비읍)은 28자에 속하지는 않지만 당시 고유어와 한자어 표기에 사용되었다. 정답 ④	
89p 확인문제	문제-본문	확인문제 다음 중 띄어쓰기가 옳은 것은? 2017 국회직 8급 ① 그∨녀석∨고마워하기는∨커녕∨일은∨제도∨않더라. ② 집채∨만한∨파도가∨몰려온다. ③ 한∨번은∨네거리에서∨큰∨사고를∨낼∨뻔했다. ④ 보잘것없는∨수입이지만∨저는∨이∨일이∨좋습니다. ⑤ 김∨양의∨할머니는∨안동∨권∨씨라고∨합니다. 정답해설 '커녕'은 조사이므로 앞말과 붙여 쓴다. 정답 ①	[정답해설] '보잘것없다'는 한 단어이므로 띄어 쓰지 않는다. [정답] ④

위치	오류유형	수정 전	수정 후
97p 2. - 표 - 9항	문제-본문	제9항 ‘ㅣ’ 역행 동화 ① 예외적으로 표준어로 인정되는 경우 : 내기(서울내기, 시골내기, 산출내기, 풋내기/-나기 ×), 냄비(남비 ×), 동댕이치다(동당이치다 ×) ② ‘ㅣ’ 역행 동화가 일어나지 아니한 형태를 표준어로 삼는 경우 : 아지랑이(아지랭이 ×) ③ 기술자에게는 ‘-장이’, 그 외에는 ‘-쟁이’가 붙는 형태를 표준어로 삼음 : 미장이, 유기장이, 멋쟁이, 소금쟁이, 담쟁이덩굴, 골목쟁이, 발목쟁이	담쟁이덩굴
103p 확인문제	문제-본문	확인문제 다음 중 발음 표기가 옳은 것으로만 이루어진 것은? 2015 국회직 8급 ① 늙고[늘꼬] 은혜[은혜] 앓는[알는] ② 맑지[막찌], 의견란[의:결란], 발이랑[반니랑] ③ 반창고[반창고], 앞지[압:찌], 계시다[계:시다] ④ 쌓네[싼네], 밟다[밥:따], 이글이글[이글이글] ⑤ 뚫네[뚤네], 값있는[가빈는], 망막염[망망념] 정답해설 의견란은 [의:견난]으로 발음해야 한다. 정답 ②	‘ㄺ’은 ‘ㄱ’ 앞에서 [ㄹ]로 발음하고, ‘예, 례’ 외의 ‘ㅖ’는 [ㅔ]로도 발음한다. 정답 ① ② 의견란[의:결란] → 의견란[의 : 견난] ③ 얇지[얍:찌] → 얇지[얄:찌] ④ 이글이글[이글이글] → 이글이글[이글리글/이그리글] ⑤ 뚫네[뚤네] → 뚫네[뚤레]
103p 제3장	문제-본문	제3장 소리의 길이	음

위치	오류유형	수정 전	수정 후
109p 확인문제	문제-본문	확인문제 다음 중 외래어 표기법에 맞게 표기된 낱말들로만 이루어진 것은? 2015 국회직 8급 ① 뉴턴, 슬로바키아, 도이칠란드, 링거 ② 도스토옙스키, 플래시, 로브스터, 버저 ③ 콘사이즈, 파일, 리더십, 케첩 ④ 코즈모폴리턴, 스프링클러, 콘셉트, 카펫 ⑤ 앙코르, 타깃, 심포지움, 플루트 정답해설 도이칠란드의 옳은 표기는 '도이칠란트'이다. 정답 ①	'도스토옙스키'를 도스토예프스키로, '로브스터'를 랍스터로, '버저'를 부저로 적지 않는다. 정답 ②

위치	오류유형	수정 전	수정 후
131p 확인문제	문제-본문	확인문제 다음 문장 중 어법에 맞게 쓰인 것은? 2017 국회직8급 ① 한편에서는 올림픽의 상업성과 여성을 상품화 한다는 비난이 있지만 비치발리볼은 이번에도 큰 인기를 누리고 있습니다. ② 혐오시설인 장례식장의 경우 주변 환경과 미관이 오염될 우려가 높다며 허가를 해 주지 않았습니다. ③ 미세먼지를 제외한 환경기준성 오염 물질들은 평년 수준 또는 약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④ 시공에 정성을 다하고 최대한 공사기간을 단축하여 고가 차도 공사를 2020년 12월까지 마치겠습니다. ⑤ 현재의 부동산 정책은 앞으로 손질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정답해설 '올림픽의 상업성과 여성을 상품화 한다'는 병렬적으로 이어지지 않는다. 정답 ①	문장의 호응이 적절하고 빠진 문장 성분이 없는 옳은 문장이다. 정답 ④

위치	오류유형	수정 전	수정 후
201p 확인문제	문제-본문	**확인문제** 밑줄 친 부분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2018년 국가직 9급 말씀ᄆᆞᆯ ㉠ ᄉᆞᆯᄫᆞ리 하ᄃᆡ 天命을 疑心ᄒᆞ실ᄊᆡ ᄭᅮᄆᆞ로 ㉡ 뵈아시니 놀애ᄆᆞᆯ ᄇᆞᄅᆞ리 ㉢ 하ᄃᆡ 天命을 모ᄅᆞ실ᄊᆡ ᄭᅮᄆᆞ로 ㉣ 알외시니 [말씀을 아뢸 사람이 많지만 天命을 의심하시므로 꿈으로 재촉하시니 / 노래를 부를 사람이 많지만 天命을 모르므로 꿈으로 알리시니] –「용비어천가」 13장 ① ㉠에서 '-이'는 주격을 나타내는 조사로 기능한다. ② ㉡에서 '-아시-'는 높임을 나타내는 선어말 어미로 기능한다. ③ ㉢에서 '-ㄷᆡ'는 이유를 나타내는 연결 어미로 기능한다. ④ ㉣에서 '-외-'는 사동을 나타내는 접미사로 기능한다. 정답해설 ㉣의 '알외시니'는 현대어 '알리시니'로 해석할 수 있다. '알리시니'는 어간 '알-'에 사동 접미사 '-리-', 높임 선어말 어미 '-시-', 그리고 어미 '-니'를 사용하여 만들어진 말이다. 그러므로 ㉣에서 '-외-'는 사동을 나타내는 접미사로 기능한다고 판단할 수 있다. 정답 ④	ᄭᅮᄆᆞ로

<table>
<tr><th>위치</th><th>오류유형</th><th>수정 전</th><th>수정 후</th></tr>
<tr><td>204p
2. (1) - 표</td><td>문제-본문</td><td>2. 주요 작품
(1) 연군(戀君)과 우국(憂國)
<table>
<tr><th>작품</th><th>작자</th><th>내용</th></tr>
<tr><td>「구름이 무심(無心)ᄒᆞᆫ 말이」</td><td>이존오</td><td>임금의 예지를 가리는 간신의 횡포를 구름과 해에 빗대어 풍자한 노래</td></tr>
<tr><td>「방안에 �는 촛불」</td><td>이개</td><td>임금에 대한 그리움을 임과 이별한 슬픔에 빗대어 표현한 노래</td></tr>
<tr><td>「천만 리 머나먼 길에」</td><td>길재</td><td>유배된 어린 단종에 대한 애절한 마음</td></tr>
<tr><td>「삼동에 뵈옷 닙고」</td><td>성삼문</td><td>임금의 승하를 애도한 노래</td></tr>
<tr><td>「가노라 삼각산(三角山)아」</td><td>김상헌</td><td>청나라에 볼모로 잡혀가는 우국지사의 비분강개</td></tr>
<tr><td>「철령 높은 봉을」</td><td>이항복</td><td>임금을 생각하는 신하의 절의를 강조하고, 억울한 심정을 호소한 노래</td></tr>
<tr><td>「한산섬 달 밝은 밤의」</td><td>이순신</td><td>왜란 중 나라를 근심하는 마음</td></tr>
</table></td><td>왕방연
조식</td></tr>
<tr><td>204p
2. (2) - 표</td><td>문제-본문</td><td>(2) 지조와 충절
<table>
<tr><th>작품</th><th>작자</th><th>내용</th></tr>
<tr><td>「가마귀 싸오는 골에」</td><td>정몽주
모친</td><td>군자로서의 절의를 까마귀와 백로의 관계에 빗대어 나타낸 노래</td></tr>
<tr><td>「이 몸이 주거 주거」</td><td>정몽주</td><td>고려 왕조에 대한 변함없는 충절(단심가)</td></tr>
<tr><td>「눈 마ᄌᆞ 휘어진 대를」</td><td>원천석</td><td>고려 왕조에 대한 굳은 지조</td></tr>
<tr><td>「가마귀 눈비 마ᄌᆞ」</td><td>길재</td><td>변하지 않은 절개를 강조</td></tr>
<tr><td>「수양산 바라보며」</td><td>성삼문</td><td>백이와 숙제의 고사를 인용하여 굳은 절개를 표현</td></tr>
<tr><td>「이 몸이 죽어가서」</td><td>성삼문</td><td>죽음을 각오한 굳은 지조와 절의</td></tr>
</table></td><td>박팽년</td></tr>
</table>

도서의 오류로 학습에 불편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더 나은 도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시대교육그룹이 되겠습니다.